

‘포항 철벽’에 막힌 광주FC

K리그1 원정경기 슈팅 3개 그치며 0-2 패...3연승 도전 실패



광주FC의 티모가 지난 8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의 K리그1 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K리그2 전남, 성남과 2-2 무승부

광주FC의 3연승 도전이 ‘포항 철벽’에 막혔다. 광주가 지난 8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의 K리그1 2023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2패를 기록했다.

앞선 수원FC와의 홈경기 2-0 승리로 연승을 달렸던 광주지만 포항 철벽 수비에 막히면서 3연승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광주는 경기 초반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득점 사냥에 나섰다.

전반 21분 이정호 감독이 먼저 교체 카드를 사용하여 경기장 분위기를 바꿨다. ‘젊은 피’ 주영재와 허을을 빼고 산드로와 하승운을 투입했다. 그리고 광주가 포항 공략에 나섰다.

전반 23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순민의 오른발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아쉽게 공은 골대를 비껴났다. 32분 코너킥 상황에서는 티모가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공이 높게 뛴다. 전반 42분에는 아사니가 프리킥 킥커로 나서 왼

발로 골을 노려봤지만, 공은 골키퍼 황인재의 품에 안겼다.

득점 없이 전반전이 끝난 뒤 후반 시작과 함께 광주가 실점을 했다.

후반 2분 고영준의 오른발에 실점을 남긴 광주는 후반 10분 다시 골을 허용했다. 제카의 패스를 받은 백성동이 왼발 슈팅을 날렸고, 크로스를 때린 공이 이내 광주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후반 33분에는 포항 이호재의 슈팅이 골대를 스쳐 지나가면서 광주가 한숨을 돌렸다.

후반 35분 프리킥을 얻은 광주가 아사니의 왼발로 침묵을 깨기 위해 나섰다. 아사니가 왼쪽에서 띄운 공이 문전에 떨어졌지만 기다리고 있던 아론의 발에 닿지 못했다.

광주는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지만 포항의 방어를 막혀 이날 3개의 슈팅을 날리는데 그치면서 0-2패를 기록했다.

이정호 감독은 “불 전란에 대해 준비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실점을 해 유감이다. 선수들이 끝까지 만회하기 위해 열심히 뛰 모습을 칭찬하고 싶다. 잘 준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7년 만에 이뤄진 전남드래곤즈와 성남FC의 맞대결은 무승부로 끝났다.

전남은 8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성남과의 K리그2 2023 6라운드 경기에서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경기 시작 5분 만에 전남이 실점을 했다. 심동운의 패스를 받은 크리스가 오른발로 전남의 골을 흔들었다.

전남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공세에 나섰다지만 전반전은 소득 없이 끝났다.

후반 7분 발디비아가 침묵을 깼다. 발디비아가 아스나위가 넘겨준 공을 받아 터닝 슈팅을 하면서 승부를 1-1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13분 아스나위가 다시 한번 도움을 올렸다. 중원에서 길게 짙어 올린 공이 하남에게 연결됐다. 그대로 공을 몰고 페널티 지역으로 향한 하남이 골키퍼를 마주하고 왼발 슈팅으로 골대를 갈랐다.

하지만 후반 31분 이종호의 머리를 막지 못하면서 전남은 2-2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해 신인왕 이예원 생애 첫 우승

KLPGA 개막전 롯데렌터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작년 신인왕 이예원이 미루고 미뤘던 생애 첫 우승을 올린 대회에서 따냈다.

이예원은 9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 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 스카이오션 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롯데 렌터카 여자오픈(총상금 8억 원) 최종 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쳐 4라운드 합계 6언더파 282타로 우승했다.

지난해 데뷔한 이예원은 KLPGA 투어 33번째 대회 만에 정상에 올랐다. 꽤 빠른 우승이지만 이예원에게는 한참 늦은 우승.

이예원은 신인이던 지난해 준우승 3번에 3위 3번 등 5위 이내에 11번이나 이름을 올리며, 상금 랭킹 3위(8억4978만원)에 올랐다.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예원은 겨울 전지훈련에서 약점이던 쇼트게임과 중장거리 퍼트를 연마한 끝에 올해 열린 첫 대회에서 값진 보상을 받았다.

우승 상금 1억4400만원을 받은 이예원은 상금 랭킹 3위(1억5379만원)로 올라서, 이번 시즌 상금왕 경쟁에 뛰어든 든든한 밑천을 마련했다. 내년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 출전권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앞당겨 치른 2023시즌 개막전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오픈에서 통산 5승을 올렸던 박지영도 9번 홀(파5) 샷 이글과 18번 홀 버디 등으로 2타를 줄여 공동 준우승을 차지하며, 상금랭킹 1위(2억6718만원)를 굳게 지켰다. 전예성은 17번 홀(파3)에서 1m 남짓 퍼퍼트를 놓쳤지만, 18번 홀(파5)에서 이날 세 번째 버디를 잡아내 공동 2위(3언더파 285타)에 올랐다. /연합뉴스



이예원이 9일 제주 서귀포 롯데스카이힐제주CC에서 열린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파이널 라운드 3번 홀에서 아이언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강초, 춘계 야구대회 우승

결승서 서석초 7-4로 꺾어

학강초가 2023년 춘계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

학강초는 지난 7일 첨단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서석초를 7-4로 꺾고 우승팀이 됐다.

이번 대회에는 학강초, 서석초와 함께 서림초, 대성초, 송정동초, 수창초, 화정초 등 7개 야구팀이 참가해 토너먼트로 진행됐다.

학강초는 첫째 날 서림초를 13-1, 4회 콜드승으로 제압한 뒤 대성초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는 8-6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결승에서 만난 서석초를 상대로 승리를 거

두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한편 2023년 춘계 중학교 야구대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순창발탁다목적경기장에서 3일간 리그전으로 진행된다.

◇대회시상내역

▲최우수선수상 : 이준상(학강초) ▲우수투수상 : 김진우(학강초) ▲타격상 : 황도연 (7타수 6안타·0.857·학강초) ▲최다투수상 : 김경찬 (5개·학강초) ▲최다타점상 : 이시후 (6타점·학강초) ▲감독상 : 양담현(서석초) ▲미기상 : 양승원(서석초) ▲감독상 : 최태영 감독(학강초) ▲지도상 : 이경모 교감(학강초)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배구 여제’ 김연경 FA 시장 나왔다

한국배구연맹, 박정아 등 20명 공시...협상 기간 22일까지



김연경



박정아

한국배구연맹(KOVO)은 9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여자부 선수 20명을 공시했다.

연봉 1억원 이상인 A등급이 15명,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B등급이 5명이다.

1년 만에 흥국생명으로 돌아온 ‘배구 여제’ 김연경이 6시즌을 채워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었다.

2005-2006시즌 데뷔한 김연경은 4시즌을 V리그에서 뛰 뒤 임대 선수 신분으로 일본으로 넘어가 터키 등 다른 나라에서 활약했다.

이후 2020-2021시즌에 11년 만에 V리그에 복귀해 5시즌째를 채웠고, 중국 리그에서 1년을 뛰었다가 2022-2023시즌 흥국생명에 돌아왔다.

김연경은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국내 선수 중 가장 많은 669득점(전체 5위)을 했고 공격 성공률은 45.76%로 1위에 올랐다.

수비에서도 리시브 효율 8위(46.80%), 디그 10위(세트당 3.713개)로 활약했다.

흥국생명을 상대로 ‘리버스 스윙’ 우승에 성공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가장 많은 5명이 FA 시장

에 나왔다.

‘클러치 박’ 박정아를 비롯해 베테랑 미들 블로커 정대영과 배유나, 공격수 문정원과 전세안 등 모두 주전급이다.

한송이(KGC인삼공사), 황연주·황민정·김연경(이상 현대건설), 김희진·김수지(이상 IBK기업은행)도 새 FA 계약에 도전한다.

정대영과 한송이는 새 계약에 성공하면 나란히 최다 FA 계약 기록을 6회로 늘린다.

V리그는 FA 등급제를 적용한다. A등급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전 시즌 연봉의 200%와 보상 선수 1명을 내주거나 전 시즌 연봉 300%에 해당하는 이적료를 원소속 구단에 지급해야 한다. B등급 선수의 보상방법은 전 시즌 연봉의 300%다.

FA 협상 기간은 9일부터 22일 오후 6시다. 영입 구단은 23일 정오까지 원소속구단에 보호 선수 명단을 제출하고, 원소속구단은 26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선수들을 제외하고 보상 선수를 골라야 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스즈메의 문단속
2관	리바운드
3관	웅남이, 오토라는 남자, 샷건 웨딩
4관	스즈메의 문단속
5관	소울메이트
6관	스즈메의 문단속, 오글리스: 웰컴 투 뱀새 마을
9관	리바운드
7관	새네거들
8관	새네거들

7관 새네거들: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뮤턴트 이스케이프, 공돌이 푸: 피와 꿀

8관 새네거들: 에어, 장기자랑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국악이 있다 전통을 잇다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4-01(토) ~ 2023-04-30(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